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6. 21.(금) 11:00 < 6.22.(토) 조간 > 배포 2024. 6. 21.(금)

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 당부

-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(LPG)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 석유시장점검
- 환원 이전 원활한 물량공급과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 위한 조치사항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6.21(금), 석탄회관에서 7.1.(월)에 예정된 휘발유, 경유, 액화석유가스(LPG) 유류세 일부 환원*에 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「석유시장 점검회의」를 개최**하였다.

* 유류세 인하율 조정 : 휘발유 25%→20%, 경유 37%→30%, 액화석유가스(LPG) 37%→30%

** 참석자 :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, 정유4사(SK에너지, GS칼텍스, S-OIL, 현대오일뱅크), 액화석유가스 공급사(SK가스, E1), 알뜰공급 3사(석유공사, 농협, 도로공사), 대한석유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주유소협회

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,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. 유류세 환원에 따라 7.1.(월)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,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, 액화석유가스(LPG)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하였다. 아울러,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.

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“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,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”이라고 밝히며, “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 구체적으로, 정유,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“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”과 알뜰 공급사에 “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만식(044-203-5223)
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강경택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철희(044-203-521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